

북한 식량작물 478만톤... 전년 비 4만톤 감소

농진청, 기상 여건·병충해 발생·비료 수급 상황 등 종합적 분석 결과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북방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2024년도 북한 식량작물 생산량'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 지역의 기상 여건 병충해 발생 및 비료 수급 상황 국내외 연구기관의 작황 자료, 위성영상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올 한 해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작물은 총 478만 톤으로, 2023년도 482만 톤보다 4만 톤(0.8%)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작물별 생산량은 쌀 215만 톤, 옥수수 161만 톤, 감자·고구마 54만 톤, 밀·보리 28만 톤, 콩 18만 톤 및 기타 잡곡 2만 톤이다.

쌀 생산량은 작년 대비 4만 톤(1.9%)

이 증가했다. 벼 이앙기 및 초기 생육기(5~6월) 기온과 일조가 매우 좋아 초기생육이 양호했으나, 이삭 형성기(7월)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등숙기(8~9월) 고온으로 벼알 무게가 감소해 수량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420kg/10a→414kg/10a)했다. 하지만 벼 재배면적이 늘어났(3.4%) 쌀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옥수수는 작년 대비 9만 톤(5.3%)이 감소했다. 생육 초·중기(5~6월) 강우량이 적당해 생육이 양호했으나, 개화기(7월) 일부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개화·수정 장애가 발생했고, 등숙기(8~9월) 고온으로 등숙이 불량해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

감자·고구마는 작년 대비 4만 톤(6.9%)이 감소했다. 감자와 고구마는 생육 중·후기(봄감자: 6월, 여름감자·고구마: 6월, 8~9월)에 가뭄 또는 고온으로 덩이줄기(감자)·덩이뿌리(고구마) 형성과 비대가 충분하지 않아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밀·보리는 작년 대비 6만 톤(27.3%)이 증가했다. 가을파종 밀·보리는 1월 온난화로 월동이 유리했고, 5월까지 적당한 기온과 강수량으로 지상부 생육이 양호해 수량이 전년 대비 증가(183kg/10a→197kg/10a)했다. 재배면적 또한 증가(19.3%)해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콩은 작년 대비 1만 톤(5.3%)이 감소했다. 파종기(5월)에 적절한 강우로 입모 확보에 유리했으나, 신장기(6월) 한발과 개화기(7월) 많은 강우로 습해가 발생했고, 공알이 커지는 시기(8~9월)에 고온으로 종자 무게가 줄어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올해 북한 지역의 여름작물 생육기간(5~9월) 평균기온은 21.3도(°C)로 작년보다 0.3도 높았고, 강수량은 914.4mm로 작년보다 27.3mm 많았다. 일사량은 2801.1MJ로 작년보다 33.9MJ 많았다.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이경태 과장은 "올해 북한 지역 기상이 5월까지 적당한 기온과 강수량으로 지상부 생육이 양호해 수량이 전년 대비 증가(183kg/10a→197kg/10a)했다. 재배면적 또한 증가(19.3%)해 생산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김옥기 기자

을사년 '운외창천(雲外蒼天)' 선정

전주상의, 내년 기업 경쟁력 높이는 데 박차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가 2025년 사자성어로 '운외창천(雲外蒼天)'을 선정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전북 경제의 재도약이라는 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운외창천(雲外蒼天)은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르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뜻의 사자성어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관을 벗어나면 다시 도약할 기회가 반드시 생긴다는 기대를 담고 있다.

전주상의는 내년 지역경제가 건설업과 소비재 산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대내외적인 경제적·정치적 불안정까지 더해지며 먹구름이 짙게 깔려 경제 상

황이 밝지는 않지만 도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면 전북경제가 다시 도약할 기회가 반드시 올 것으로 확인하는 뜻에서 '운외창천'을 사자성어로 선정했다.

특히, 전주상의는 창립 90주년을 맞는 2025년을 기점으로 하여 기업의 경영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해소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정태 회장은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함께 소통하고 힘을 합쳐 나간다면 어떤 일도 극복할 수 있다"면서 "우리 모두 전북경제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옥기기자



전개공, 도내 지역건설 활성화 상생협력 방안 논의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와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는 지난 18일 도내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도내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현재 도내 건설업계가 직면한 다양한 도전과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고, 소재철 회장은 도내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정책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생활형 SOC 사업 발굴 등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건설협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설산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건설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소재철 회장은 "건설업계의 원가부담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발주 전 적정 예산 확보와 사업규모에 맞는 공사기간 확보와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건의했다.

/오만호 기자

경진원,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성과교류회 성료

전북 경제를 탄탄하게 뒷받침할 소기업 지원 우수성과 교류

전북특별자치도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19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 참여기업 및 협업기관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사업은 도내 50인 이하 제조 기반 소기업의 맞춤형 기술 역량 강화를 통한 공정개선과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을 지원, 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구축해주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소기업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원가절감 등을 위한 공정자동화와 품질개선을 도모하고 중대재해예방, 온실가스 감축 등의 ESG 분야를 확대한 47개 공정개선 과제를 선정, 시험분석 및 품질인증 획득 120개를 지원하여 총 20억원을 지원 하였다.

본 성과교류회에서는 공정개선 과제를 우수하게 수행한 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다. 도지사 표창은 농업회사법인 (주)소부당(대표자 김대영), 진흥원장은 주식회사 유니온기업(대표자 홍진표), 주식회사 이공가전(대표자 국영호), 유한회사 이티컴퍼니(대표자 정영호), 주식회사 엘오타이(대표자 임재원), 주식회사 아임(대표자 성열규) 6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방동 떡 상품의 온·오프라인 시장을 활발하게 개척하고 있는 식품기업 소부당과 탈산 원천기술 플랫폼화에 의한 첨단 소재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엘오타이 기업의 수행과제 사례발표를 통해 성과를 참석자들과 성과를 공유했다.

소기업의 ESG 경영전략을 마련하고



2025년도 ESG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특별강연으로 우석대학교 교수가 ESG 국가정책연구소 지용승 강사를 초청해 소기업의 ESG를 통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경진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 글로벌 경제 둔화와 같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속에서도 소기업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이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국민연금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탄소매트 나눔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 탄소매트 기부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협업... 취약계층 63 가구에 기증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지난 18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사회복지회관에서 국민연금공단·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탄소매트 나눔식'을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은 총 8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출연해, 이날 전북 도내 취약계층 가구 63곳에 탄소매트를 기증하였다.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마련된 이 행사의 시작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지역사회를 위한 연탄나눔 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지난해부터는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분위기에 발 맞춰 연탄 대신 탄소매트를 지원하고 있다.

탄소매트는 전기매트와 동일한 용도

로 사용되지만, 전기코일에 의해 가열된 열이 아닌 복사열을 이용해 열을 전달한다. 화재를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느정도 연탄 난방 대신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남화영 사장은 "탄소매트 기부를 통해 전기재해 가능성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달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을 펼친 공로로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시행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등급인 '레벨 5' 기관으로 선정됐다.

/오만호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비상임감사 초청 '재정 특별교육' 진행

새만금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 나경균)는 19일, 안내형 비상임감사를 초청하여 전 직원 대상 '재정 특별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정부 재정의 이해'라는 주제로, 예산 수립 및 운용 관련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총사업비 관리 사업 추진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안내형 비상임감사는 현재 기획재정부 나라살림연구소 주임교수로 활동



중이며 기획재정부 부이사관을 역임한 재정 분야의 전문가다. 강의는 △예산의 기본 개념 △예산 순환 및 집행관리 시스템 △재정운용

체계 등 실무와 연계된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예산 수립과 집행관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총사업비 관리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재정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오만호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